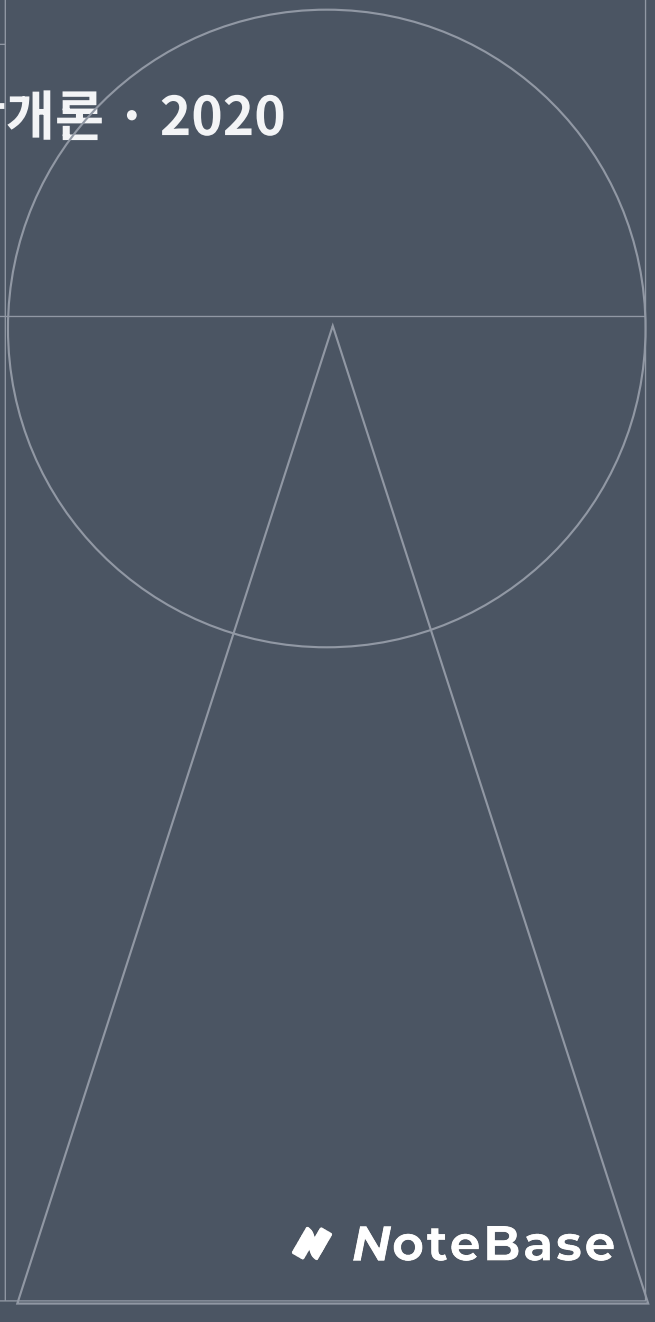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경제학개론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경제학개론 · 2020

공무원/국가직/9급 · 경제학개론 · 2020

문 1. X재에 대한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은 다음과 같다. X재 시장균형에서의 소비자잉여는? (단, Q_D는 수요량, Q_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 시장수요곡선: $Q_D = 9 - P$
◯ 시장공급곡선: $Q_S = 2P$

① 12
② 14
③ 16
④ 18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균형가격은 3, 균형거래량은 6이다.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 아래이면서 균형가격 위인 삼각형의 넓이**이므로 $\frac{1}{2} \cdot 6 \cdot (9 - 3) = 18$이다.

계산 과정

균형가격과 거래량: 시장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진다**. 주어진 두 식을 같게 놓으면 $9 - P = 2P$, 즉 $3P = 9$이므로 균형가격은 3이다. 이를 공급곡선에 대입하면 $Q_S = 2 \cdot 3 = 6$이므로 균형거래량은 6이다.

수요곡선의 가격축 절편: 수요곡선을 가격에 대해 정리하면 $P = 9 - Q_D$이다. 수요량이 0일 때 가격은 9이므로 가격축 절편은 9이다. 따라서 이 절편과 균형가격의 차이는 $9 - 3 = 6$이며, 이는 소비자잉여를 나타내는 삼각형의 높이이다.

소비자잉여: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에서 실제 지출액을 뺀 값이다. 수요곡선이 각 수량에서의 지불용의를 나타내므로, 소비자잉여는 **균형거래량까지 수요곡선과 균형가격선 사이의 면적**이다. 이 문제의 수요곡선은 직선이므로 밑변이 균형거래량 6, 높이가 6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frac{1}{2} \cdot 6 \cdot 6 = 18$이므로 소비자잉여는 18이며, ④의 값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환율 변화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받게 될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외환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법칙이 적용된다)

①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

② 대미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

③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원화표시 가격이 상승한다.

④ 미국 유학 중인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부모의 부담이 커진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달러 수요가 증가하여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화표시 가격이 같은 우리 수출 상품의 **달러표시 가격이 낮아진다**. 따라서 대미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다**.

선지별 해설

원/달러 환율은 1달러를 사는 데 필요한 원화 금액이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 달러 가격인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이에 따른 영향을 각 상품의 원래 표시 가격과 송금할 달러 금액이 일정하다는 조건에서 살펴본다.

① O: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같은 1달러를 사는 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 이는 원화로 살 수 있는 달러가 줄어든다는 뜻이므로,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하락**한다.

② X: 원화표시 수출 가격이 일정하면 원/달러 환율이 오를수록 그 상품을 사는 데 필요한 달러가 줄어든다. 미국 소비자에게 우리 상품이 더 저렴해지므로, 대미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진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미국 상품의 달러표시 가격이 같아도,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대금에 필요한 달러를 사는 데 더 많은 원화를 지출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 상품의 원화표시 가격이 상승**한다.

④ O: 미국 유학 중인 자녀에게 같은 달러 금액의 생활비를 보내려면 환율 상승 후에는 더 많은 원화를 달러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같은 달러 금액을 보내는 데 드는 원화 부담**이 커진다.

NoteBase

문 3. 현재 경제가 장기균형 상태에 있다. 총수요가 감소할 경우 새로운 장기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가수준과 산출량이 현재의 장기균형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동한다.

② 물가수준과 산출량이 현재의 장기균형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동한다.

③ 물가수준은 현재의 장기균형과 동일하지만 산출량은 감소한다.

④ 물가수준은 현재의 장기균형보다 낮아지지만 산출량은 동일하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총수요 감소는 장기적으로 **물가수준을 낮추지만 산출량은 바꾸지 않는다**. 노동·자본·기술 등 생산능력이 변하지 않으면 장기 산출량은 원래의 잠재산출량으로 돌아간다.

핵심 풀이

장기균형의 기준: 장기 산출량은 노동·자본·기술 등 실물 생산요인으로 결정되는 잠재산출량이다. 총수요만 감소하고 이들 생산요인이 변하지 않으면 **장기총공급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장기균형에서도 산출량은 처음과 같다.

단기 변화: 총수요가 감소하면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단기에는 명목임금 등이 즉시 조정되지 않으므로 기업이 생산을 줄여 물가수준과 산출량이 모두 하락한다. 두 값이 모두 낮아지는 것은 **단기균형의 변화**이다.

장기 조정: 산출량이 잠재산출량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 노동수요 감소에 따라 명목임금이 하락하고, 기대물가도 낮아진다. 생산비용이 낮아지면서 단기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산출량이 잠재산출량을 회복한다. 그 결과 새로운 장기균형은 **물가수준은 처음보다 낮고 산출량은 처음과 같은** 상태가 된다.

NoteBase

문 4. 매몰비용(sunk cos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단 지출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다.

② 매몰비용의 기회비용은 0이다.

③ 일단 지출된 후에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다.

④ 고정비용이면서 매몰비용인 경우는 없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고정비용 중에서도 이미 지출하여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은 매몰비용**에 해당한다. 고정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지, 매몰비용은 회수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므로 두 범주는 겹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매몰비용은 이미 지출되었으며, 현재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다. 지출한 자산을 되팔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가치를 회수할 수 있다면, 그 회수 가능한 부분은 매몰비용이 아니다.

② O: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 때문에 포기하는 최선의 대안의 가치이다. 이미 회수할 수 없게 된 지출은 현재의 선택으로 다른 용도에 돌리거나 되찾을 수 없으므로, 그 매몰비용 자체의 **기회비용은 0**이다.

③ O: 매몰비용은 사업을 계속하든 중단하든 회수할 수 없어 현재 선택하는 대안들 사이에서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앞으로의 의사결정에서 매몰비용을 제외하고,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미래의 수입과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④ X: 고정비용은 생산량이 변해도 총액이 변하지 않는 비용이고, 매몰비용은 이미 지출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다. 분류 기준이 다르므로 **고정비용이면서 매몰비용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지출한 회수 불가능한 공장 설계비는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비용이면서 매몰비용이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없다'는 표현은 '그런 경우가 있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5. 甲국은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다. IS-LM-BP 곡선이 모두 만나는 초기 균형 상태에 있다. 정책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IS와 LM 곡선은 각각 우하향, 우상향하며 경제 주체들의 환율 예상은 정태적이다)

① 확대재정정책 실시 이후, 조정과정에서 환율이 하락하며 새로운 균형에서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② 확대재정정책 실시 이후, 조정과정에서 환율이 상승하며 새로운 균형에서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③ 확대금융정책 실시 이후, 조정과정에서 환율이 하락하며 새로운 균형에서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④ 확대금융정책 실시 이후, 조정과정에서 환율이 상승하며 새로운 균형에서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확대금융정책으로 이자율이 낮아지면 자본이 유출되어 **환율이 상승**한다. 이에 따른 자국통화 가치 하락은 순수출을 늘려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환율은 외국통화 1단위의 자국통화 표시 가격이므로, 환율 상승은 자국통화 가치 하락을 뜻한다. 주어진 정태적 환율 예상과 완전한 자본이동 조건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의 균형 이자율은 국제이자율과 같고, BP 곡선은 수평이다. 국내이자율이 국제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자본이 유입되고, 낮아지면 자본이 유출된다.

① X: 확대재정정책은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이자율 상승 압력을 만든다. 이에 따라 자본이 유입되면 자국통화 가치가 올라 환율이 하락한다. 환율 하락으로 순수출이 감소하면서 IS 곡선은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 따라서 환율 하락 방향은 맞지만, 새로운 균형에서 **국민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초기 수준을 유지**한다.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가 순수출 감소로 완전히 상쇄되기 때문이다.

② X: 확대재정정책에 따른 이자율 상승 압력은 자본유입을 유발하므로, 조정과정에서 환율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한다. 이때 순수출 감소가 재정확대의 소득 증가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므로, 새로운 균형의 국민소득도 초기 수준과 같다. 환율의 방향과 최종 국민소득의 변화가 모두 잘못되었다.

③ X: 확대금융정책으로 통화공급이 늘어나면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이자율 하락 압력이 발생한다. 자본이 유출되면서 자국통화 가치가 내려가므로, 환율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한다. 환율 상승은 순수출을 늘리므로 새로운 균형에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부분은 맞다.

④ O: 확대금융정책은 LM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이자율 하락 압력에 따른 자본유출은 환율을 상승시킨다. 자국통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입품이 상대적으로 비싸져 **순수출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IS 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새로운 균형에서 이자율은 국제이자율로 돌아오고, 확대된 통화공급에 대응하여 국민소득은 초기보다 높아진다.

NoteBase

문 6.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중앙은행이 민간으로부터 1조 원 규모의 국채를 매입했을 때, 은행제도 전체를 통해 최대로 변화될 수 있는 통화량은?

◯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10%로 정해 놓고 있다.
◯ 예금은행은 법정지급준비금 외에는 전액 대출하고 있다.
◯ 요구불예금만 존재하며, 저축성예금은 없다.
◯ 현금통화비율은 0%이다.

① 9조 원 감소
② 9조 원 증가
③ 10조 원 감소
④ 10조 원 증가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현금 유출과 초과지급준비금이 없으므로 **통화승수는 지급준비율의 역수**인 10이다. 국채 매입으로 본원통화가 1조 원 늘어나면 통화량은 최대 10조 원 증가한다.

계산 과정

1. 최초 자금 유입: 중앙은행이 민간의 국채를 매입하면 매입대금 1조 원이 민간에 지급되어 본원통화가 1조 원 증가한다. 현금통화비율이 0%이므로 이 돈은 현금으로 보유되지 않고 요구불예금이 되며, 은행제도 전체의 지급준비금도 1조 원 늘어난다.

2. 예금의 확대: 은행은 최초 예금 1조 원 중 10%인 0.1조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0.9조 원을 대출한다. 대출금도 현금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예금되므로, 다음 은행은 0.9조 원 중 0.09조 원을 남기고 0.81조 원을 대출한다. 이처럼 **대출금이 다시 예금되는 과정**이 반복된다.

3. 통화승수와 통화량 계산: 법정지급준비율을 r이라 하면 r = 0.1이다. 현금 유출이 없고 은행이 법정지급준비금 외에는 전액 대출하므로, 최종적으로 늘어난 예금의 10%가 처음 공급된 지급준비금 1조 원과 같아진다. 따라서 본원통화 증가액에 대한 통화량 증가액의 배수인 통화승수는 $m = \frac{1}{r} = \frac{1}{0.1} = 10$이다. 통화량 증가액은 1조 원 × 10 = 10조 원이다.

요구불예금만 있고 현금통화가 없으므로 늘어난 예금 전액이 통화량 증가에 해당한다. 이때 **최초 예금 1조 원도 포함**하므로, 대출 과정에서 추가된 예금 9조 원과 구별해야 한다. 통화량은 최대 10조 원 증가하며, ④의 '10조 원 증가'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7. 효율적 임금가설(efficient wage hypothe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② 임금과 노동자의 노력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③ 효율적 임금이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임금이므로 노동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④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효율적 임금은 노동자의 노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노동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게 지급하는 임금**이다. 임금을 낮추면 생산성도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임금이 균형 임금보다 낮다는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해설

① O: 효율적 임금가설에서는 기업이 노동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 이 임금에서는 노동공급량이 노동수요량보다 많아져, **그 임금에 일할 의사가 있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② O: 임금이 높아지면 노동자의 노력이 증가하여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예를 들어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해고되어 그 일자리를 잃을 때의 손실이 크므로 태만을 줄일 유인이 있다. 이처럼 임금은 단순한 비용인 동시에 **노력과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③ X: 효율적 임금은 노동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업은 임금을 낮추어 절약하는 인건비뿐 아니라 그로 인한 노력과 생산성의 하락도 고려한다. 따라서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편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균형 임금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

④ O: 실업자가 존재하더라도 기업은 임금을 낮출 경우 노동자의 노력과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어 임금 인하를 꺼린다. 이처럼 기업이 스스로 높은 임금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있으므로 **임금의 하방경직성**, 즉 임금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설명한다.

NoteBase

문 8. 효용함수 $U(I)=\frac{1}{100}\sqrt{I}$를 가진 구직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다. 새로운 직장에서는 자신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의 성과에 따라 64만 원의 월 소득을 받거나 혹은 196만 원의 월 소득을 받을 수 있다. 64만 원을 받을 확률과 196만 원을 받을 확률이 각각 50%로 동일할 경우, 기대효용은? (단, U는 효용이고, I는 원으로 표시된 월 소득이다)

① 11

② 12

③ 13

④ 14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기대효용은 **각 소득에서 얻는 효용을 확률로 가중평균**한 값이다. 두 소득의 효용이 각각 8과 14이고 발생 확률이 같으므로, 기대효용은 11이다.

계산 과정

기대효용은 가능한 소득별 효용에 각각의 발생 확률을 곱해 더한 값이다. 이 문제에서는 두 소득의 발생 확률이 각각 50%이므로 $E[U(I)]=0.5\cdot U(640000)+0.5\cdot U(1960000)$으로 계산한다.

효용함수 $U(I)=\frac{1}{100}\sqrt{I}$에서 소득은 **원 단위로 대입**한다. 따라서 64만 원은 640,000원, 196만 원은 1,960,000원이다. 각 소득에서 얻는 효용은 $U(640000)=\frac{800}{100}=8$, $U(1960000)=\frac{1400}{100}=14$이다. 8과 14는 소득액이 아니라 각 소득이 주는 효용이다.

두 효용을 확률로 가중평균하면 $E[U(I)]=0.5\cdot 8+0.5\cdot 14=11$이다. 기대효용은 11이며, 이는 ①의 값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9. 한국에서는 노동자가 1주일 일하면 쌀 6섬을 생산할 수도 있고, 옷 5벌을 생산할 수도 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노동자가 1주일 일하면 쌀 4섬을 생산할 수도 있고, 옷 3벌을 생산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	베트남
쌀(섬)	6	4
옷(벌)	5	3

① 한국과 베트남 모두 쌀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② 한국은 옷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베트남은 쌀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③ 한국은 쌀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베트남은 옷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④ 한국과 베트남 모두 옷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같은 재화 1단위를 생산할 때 **포기하는 다른 재화의 양이 적은 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진다. 이 기회비용은 옷에서는 한국이, 쌀에서는 베트남이 더 낮다.

계산 과정

표의 수치는 노동자 1명이 1주일 동안 쌀이나 옷 중 하나만 생산할 때의 생산량이다.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이 더 낮은 재화**에서 성립한다. 재화 1단위의 기회비용은 같은 노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다른 재화의 양을 해당 재화의 생산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옷 1벌의 기회비용: 한국은 옷 5벌을 생산하는 대신 쌀 6섬을 포기하므로 $\frac{6}{5}$섬이다. 베트남은 옷 3벌 대신 쌀 4섬을 포기하므로 $\frac{4}{3}$섬이다. $\frac{6}{5} < \frac{4}{3}$이므로 한국이 옷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쌀 1섬의 기회비용: 한국은 쌀 6섬을 생산하는 대신 옷 5벌을 포기하므로 $\frac{5}{6}$벌이다. 베트남은 쌀 4섬 대신 옷 3벌을 포기하므로 $\frac{3}{4}$벌이다. $\frac{3}{4} < \frac{5}{6}$이므로 베트남이 쌀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따라서 한국은 옷 생산에, 베트남은 쌀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며, 이는 ②의 설명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0. 甲국에서 X재에 대한 국내 수요곡선과 국내 공급곡선은 다음과 같다. X재의 국제가격이 100인 상황에서 甲국은 자유무역을 허용하였다. 이때 甲국 정부에서 국내 X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관세를 단위당 8만큼 부과하는 경우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단, Q_D는 국내 수요량, Q_S는 국내 공급량, P는 X재 가격이고 甲국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다)

◯ 국내 수요곡선: $Q_D = -\frac{P}{4} + 100$
◯ 국내 공급곡선: $Q_S = \frac{P}{2} + 10$

① 14
② 24
③ 28
④ 36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관세 8이 국내가격을 그만큼 올려 국내 생산은 4 늘고 소비는 2 줄어든다. 이 두 변화에서 발생하는 **자중손실**은 16 + 8 = 24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국내가격: 甲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이므로 관세를 부과해도 국제가격 100은 변하지 않는다. 수입이 계속되는 한 **국내가격은 국제가격에 단위당 관세를 더한 값**이므로, 관세 부과 후에는 100 + 8 = 108이 된다.

자유무역 때의 수량: 가격 100을 국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에 대입하면 $Q_D = -\frac{100}{4} + 100 = 75$, $Q_S = \frac{100}{2} + 10 = 60$이다. 국내 수요 중 국내 생산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75 − 60 = 15가 수입량이다.

관세 부과 후의 수량: 가격 108에서 $Q_D = -\frac{108}{4} + 100 = 73$, $Q_S = \frac{108}{2} + 10 = 64$이다. 국내 생산은 64 − 60 = 4 늘고, 소비는 75 − 73 = 2 줄어든다. 수입량은 73 − 64 = 9로 여전히 양수이므로 국내가격 108을 적용할 수 있다.

생산 왜곡 손실: 관세 때문에 추가로 생산하는 4는 국제가격 100에 수입할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공급곡선이 직선이므로 이 추가 비용은 밑변이 생산 증가량 4, 높이가 관세 8인 삼각형의 넓이이다. 따라서 생산 왜곡 손실은 $\frac{1}{2} \cdot 8 \cdot 4 = 16$이다.

소비 왜곡 손실: 소비가 2 줄면서, 소비자의 지불의사가 국제가격 100보다 높아 얻을 수 있었던 순편익이 사라진다. 수요곡선이 직선이므로 이 손실은 밑변이 소비 감소량 2, 높이가 관세 8인 삼각형의 넓이이다. 따라서 소비 왜곡 손실은 $\frac{1}{2} \cdot 8 \cdot 2 = 8$이다.

전체 자중손실: 관세수입은 소비자에게서 정부로 이전되는 금액이므로 **그 자체는 사회 전체의 순손실이 아니다**. 자중손실은 생산 왜곡 손실과 소비 왜곡 손실의 합인 16 + 8 = 24이며, ②의 값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1. “X재는 열등재(inferior goods)이다.”라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탄력성은?

① 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

② X재 수요의 소득탄력성

③ X재 공급의 가격탄력성

④ X재 공급의 교차탄력성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열등재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이다. 따라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음수**인지 확인하면 열등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개념 구분

수요의 소득탄력성: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소득이 1% 변하면 수요량이 몇 %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므로 **소득탄력성이 음수**이다. 반대로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므로 소득탄력성이 양수이다. 따라서 X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으로 열등재 여부를 판단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X재 자체의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반응을 나타낸다. **가격 변화에 대한 반응**과 소득 변화에 대한 반응은 서로 다르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만으로는 열등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공급 관련 탄력성: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X재 자체의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반응을, 공급의 교차탄력성은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른 X재 공급량의 반응을 나타낸다. 두 탄력성 모두 **공급량의 반응**을 다루므로, 소비자의 소득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반응으로 구분하는 열등재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NoteBase

문 12. 솔로우(Solow) 성장 모형에서 장기적으로 1인당 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생산기술의 향상
ㄴ. 국민저축률의 감소
ㄷ. 인구증가율의 증가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생산기술이 향상되면 같은 양의 노동과 자본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 **1인당 소득이 증가**한다. 저축률 하락이나 인구증가율 상승은 근로자 한 사람이 사용하는 자본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보기별 해설

ㄱ. O: 생산기술의 향상은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을 높인다**. 같은 양의 생산요소로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1인당 소득이 높아진다. 기술진보가 지속되면 자본축적만으로는 유지하기 어려운 1인당 소득의 지속적 성장도 가능하다.

ㄴ. X: 솔로우 모형에서 저축은 투자로 이어진다. 국민저축률이 감소하면 소득 중 투자되는 몫이 줄어 자본축적이 둔화되고, 장기 균형의 1인당 자본과 소득이 낮아진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1인당 소득 수준을 높이는 방향은 **국민저축률의 증가**이다. 다만 저축률 상승은 장기 균형의 소득 수준을 높일 뿐, 그 자체로 1인당 소득의 지속적인 성장률을 높이지는 않는다.

ㄷ. X: 인구증가율이 높아지면 늘어나는 근로자에게도 자본을 배분해야 하므로, 1인당 자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투자가 커진다. 저축률과 생산기술 등 다른 조건이 같으면 이러한 **자본의 희석**으로 장기 균형의 1인당 자본과 소득이 낮아진다. 1인당 소득 수준을 높이는 방향은 인구증가율의 감소이다.

장기적으로 1인당 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ㄱ뿐이며, 이는 ①의 구성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3.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발생한다.
ㄴ. 소비측면에서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이 거래된다.
ㄷ. 생산측면에서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소비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소비자 자신뿐 아니라 제3자도 편익을 얻는다. 시장에서는 이 외부편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거래된다**.

보기별 해설

ㄱ. O: 외부효과는 생산이나 소비가 거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 대가가 시장에서 지급되거나 보상되지 않는 현상이다. 시장의 의사결정에는 **외부편익이나 외부비용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사적 판단과 사회 전체의 판단이 달라진다. 그 결과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과소 거래가,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과다 거래가 발생하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

ㄴ. X: 소비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소비자 본인이 얻는 사적 편익에 제3자가 얻는 외부편익이 더해지므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그러나 소비자는 주로 자신의 편익을 기준으로 구매하므로, 시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거래된다**. 따라서 '많이 거래된다'를 '적게 거래된다'로 고쳐야 한다.

ㄷ. O: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생산자가 직접 부담하는 사적 비용 외에 제3자가 부담하는 외부비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장 오염으로 인근 주민이 피해를 입고 이를 보상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도 사회 전체의 생산비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에 외부비용을 더한 것이므로 **사적 비용보다 크다**.

옳은 보기는 ㄱ과 ㄷ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4. 확장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장·단기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확장적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이자율의 하락을 통해 투자를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만을 초래한다.

② 확장적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이자율을 상승시켜 자산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킨다.

③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총공급을 증가시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킨다.

④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외부 정책 시차가 길어 효과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확장적 통화정책은 단기에 **이자율을 낮춰 투자를 늘리지만**, 장기에는 물가가 조정되어 실질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리지 못한다. 이처럼 장기에 통화량 변화가 실질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성질을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본적인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단기에는 물가와 임금이 즉시 조정되지 않는다. 이때 통화량이 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져 투자와 총수요가 증가한다. 장기에는 물가와 임금이 조정되고 생산이 노동·자본·기술 등에 의해 결정되는 잠재생산 수준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통화량 증가는 **실질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리지 못하고 물가를 높인다**. 이를 장기적인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한다.

② X: 확장적 통화정책의 단기 경로는 **이자율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다. 낮아진 이자율은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다른 조건이 같다면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또한 장기에는 화폐의 중립성에 따라 실질소비와 투자가 통화량 증가만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③ X: 정부지출 증가나 감세를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에 **총공급이 아니라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기를 부양한다. 정부의 차입 수요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민간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으며, 재정 확대가 오히려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④ X: 외부 정책 시차는 정책을 실행한 뒤 경제에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재정정책은 예산 심의 등 결정·집행까지의 내부 시차가 길 수 있지만, 정부지출이 총수요에 직접 반영되므로 **외부 시차는 통화정책보다 대체로 짧다**. 따라서 외부 시차가 길어 단기에 효과가 없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또한 총수요 확대에 의한 경기부양 효과는 주로 단기에 나타나며, 기본 모형에서는 장기에 물가가 조정되어 생산이 잠재생산 수준으로 돌아간다.

NoteBase

문 15. 다음 표는 경합성과 배제성의 여부에 따라 A□D재를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합성	
		있음	없음
배제성	있음	A	B
	없음	C	D

① A재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② 혼잡한 유료 고속도로는 B재에 해당한다.

③ C재는 공유자원이다.

④ D재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표에서 C재는 **경합성은 있고 배제성은 없는** 재화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량을 줄이므로 공유자원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는 성질이고,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성질이다. 표의 가로 방향은 경합성, 세로 방향은 배제성을 나타낸다.

① X: A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있는 사적재이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혜택만 얻는 무임승차 문제를 A재의 특성으로 볼 수 없다. 무임승차 문제는 배제성이 없는 재화에서 발생한다.

② X: B재는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은 없는 클럽재이다. 유료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받으므로 배제성이 있지만, **혼잡하면 다른 차량의 진입이 기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므로 경합성도 있다. 따라서 혼잡한 유료 고속도로는 A재에 해당하며, 혼잡하지 않은 유료 고속도로가 B재의 예이다.

③ O: C재는 배제성이 없는 행과 경합성이 있는 열이 만나는 칸에 있다. 이용자를 배제하기 어렵지만 누군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공유자원**이다. 예를 들어 누구나 조업할 수 있는 어장에서 한 사람이 물고기를 잡으면 다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줄어든다.

④ X: D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없는 공공재이다.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으며,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기를 기다리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NoteBase

문 16. 수량방정식(quantity equation)은 통화량과 산출량의 명목가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물가가 10이고 통화량이 1,000억 원일 때, 수량방정식이 성립하는 화폐유통속도와 산출량(실질 GDP)의 조합으로 옳게 짝 지은 것은?

① 화폐유통속도: 500, 산출량(실질 GDP): 20억 원

② 화폐유통속도: 20, 산출량(실질 GDP): 500억 원

③ 화폐유통속도: 200, 산출량(실질 GDP): 2억 원

④ 화폐유통속도: 2, 산출량(실질 GDP): 200억 원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통화량에 화폐유통속도를 곱한 값은 **명목 GDP**와 같다. 화폐유통속도가 2이면 명목 GDP는 2,000억 원이고, 이를 물가 10으로 나눈 **실질 GDP는 200억 원**이다.

계산 과정

수량방정식은 $MV = PY$이다.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물가, Y는 실질 GDP이다. V는 일정 기간 동안 화폐 한 단위가 최종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되는 평균 횟수를 뜻한다. 따라서 MV는 화폐가 지출된 총액이고, PY는 실질 GDP를 해당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한 **명목 GDP**이다.

주어진 통화량 1,000억 원과 물가 10을 대입한다. Y를 억 원 단위로 나타내면 $1{,}000 \cdot V = 10 \cdot Y$이므로 $Y = \frac{1{,}000 \cdot V}{10} = 100V$이다. 즉, **화폐유통속도 1에 대응하는 실질 GDP는 100억 원**이다.

화폐유통속도가 2이면 실질 GDP는 100 × 2 = 200억 원이다. 이때 통화량에 유통속도를 곱한 값은 1,000억 원 × 2 = 2,000억 원이고, 명목 GDP도 10 × 200억 원 = 2,000억 원이므로 수량방정식이 성립한다.

화폐유통속도 2와 실질 GDP 200억 원의 조합은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7. 甲국은 사과와 배 두 재화만 생산한다. 2018년과 2019년에 생산된 두 재화의 가격과 수량은 다음 표와 같다. 甲국의 2019년 실질 GDP와 GDP 디플레이터를 옳게 짝 지은 것은? (단, 2018년은 실질 GDP 산출을 위한 기준연도이다)

	사과 (가격, 수량)	배 (가격, 수량)
2018년	(20원, 200개)	(20원, 100개)
2019년	(20원, 200개)	(30원, 200개)

① 2019년 실질 GDP: 6,000원, 2019년 GDP 디플레이터: 125

② 2019년 실질 GDP: 6,000원, 2019년 GDP 디플레이터: 150

③ 2019년 실질 GDP: 8,000원, 2019년 GDP 디플레이터: 125

④ 2019년 실질 GDP: 8,000원, 2019년 GDP 디플레이터: 15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실질 GDP는 **기준연도인 2018년 가격**으로 2019년 생산량을 평가하므로 8,000원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 10,000원을 실질 GDP 8,000원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125**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2019년 실질 GDP: 실질 GDP는 가격 변화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기준연도 가격으로 해당 연도의 생산량을 평가한 값이다. 표에서 2018년 사과와 배의 가격은 각각 20원이고, 2019년 생산량은 각각 200개이다. 따라서 **2018년 가격과 2019년 수량**을 곱하여 합하면 20원 × 200 + 20원 × 200 = 8,000원이다.

2019년 명목 GDP: 명목 GDP는 해당 연도의 가격과 생산량을 곱하여 합한 값이다. 2019년 사과 가격은 20원, 배 가격은 30원이며 생산량은 각각 200개이므로 20원 × 200 + 30원 × 200 = 10,000원이다. 이는 2019년 생산물을 **2019년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2019년 GDP 디플레이터: 같은 생산량을 당해 연도 가격으로 평가한 명목 GDP와 기준연도 가격으로 평가한 실질 GDP를 비교하여 물가 수준을 구한다. 계산식은 GDP 디플레이터=명목 GDP실질 GDP×100이다. 값을 대입하면 $\frac{10,000}{8,000} \times 100 = 125$이다. 이는 기준연도 물가를 100으로 할 때의 지수이며, 금액 단위인 원을 붙이지 않는다.

2019년 실질 GDP 8,000원과 GDP 디플레이터 125의 짝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8. 다음 표는 경기자 1과 경기자 2의 전략 A와 전략 B의 선택에 따른 두 경기자의 보수(payoff)를 나타낸 것이다. 두 경기자가 전략을 동시에 선택할 때, 내쉬균형(Nash equilibrium) 전략은? (단, 표의 괄호에서 앞의 숫자는 경기자 1의 보수, 뒤의 숫자는 경기자 2의 보수이다)

경기자 1 \ 경기자 2	A	B
A	$(-1, -1)$	$(-7, 0)$
B	$(0, -7)$	$(-5, -5)$

① 경기자 1은 A, 경기자 2는 A를 선택

② 경기자 1은 A, 경기자 2는 B를 선택

③ 경기자 1은 B, 경기자 2는 A를 선택

④ 경기자 1은 B, 경기자 2는 B를 선택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두 경기자 모두 상대가 어느 전략을 택하든 B를 선택할 때 보수가 더 크다. 서로 B를 선택하면 **혼자 전략을 바꿔 보수를 높일 수 없으므로** 내쉬균형이 성립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보수 읽기: 표의 행은 경기자 1의 전략, 열은 경기자 2의 전략이다. 각 칸의 앞 숫자는 경기자 1, 뒤 숫자는 경기자 2의 보수이다. 내쉬균형은 **상대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각자 자신의 보수를 최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한 상태이므로, 상대의 전략을 고정하고 자기 보수만 비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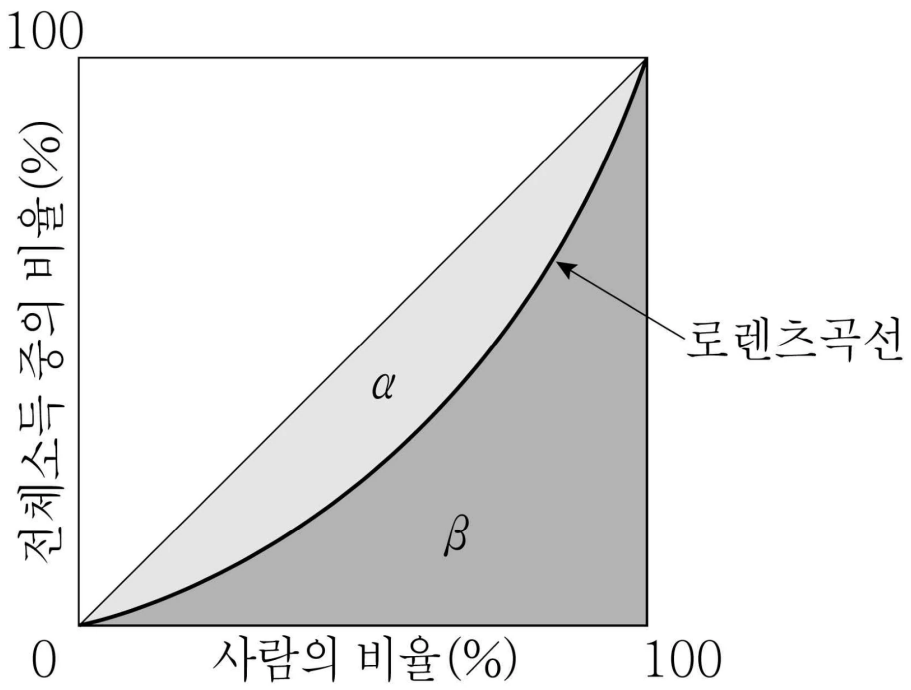
경기자 1의 최적반응: 경기자 2가 A를 선택하면, 경기자 1의 보수는 A에서 -1, B에서 0이므로 B가 유리하다. 경기자 2가 B를 선택해도 A에서 -7, B에서 -5이므로 B가 유리하다. 음수 보수에서도 -5가 -7보다 크다. 따라서 경기자 1에게는 **상대의 선택과 관계없이 B가 더 유리하다**.

경기자 2의 최적반응: 경기자 1이 A를 선택하면, 경기자 2의 보수는 A에서 -1, B에서 0이므로 B가 유리하다. 경기자 1이 B를 선택해도 A에서 -7, B에서 -5이므로 B가 유리하다. 따라서 경기자 2도 상대의 선택과 관계없이 B를 선택한다.

균형 확인: 두 경기자가 모두 B를 선택하면 보수는 (-5, -5)이다. 이때 어느 한 경기자만 A로 바꾸면 자신의 보수가 -5에서 -7로 낮아진다. 따라서 두 경기자의 최적반응이 만나는 전략은 '경기자 1은 B, 경기자 2는 B를 선택'이며,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9. 그림은 소득분배상태를 나타내는 로렌츠곡선(Lorenz curve)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분배가 완전 균등할 경우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이 된다.

② 두 경제의 로렌츠곡선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 소득분배상태를 비교할 수 있다.

③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frac{\alpha}{\alpha+\beta}$이다.

④ 지니계수 값이 클수록 더욱 불평등한 소득분배상태를 나타낸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로렌츠곡선이 서로 교차하면 인구 구간에 따라 두 곡선의 위아래 관계가 달라진다. 따라서 **로렌츠곡선만으로 어느 경제의 소득분배가 더 균등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로렌츠곡선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누적한 인구 비율을 가로축에, 이들이 차지하는 누적 소득 비율을 세로축에 나타낸다. 완전 균등분배에서는 하위 20%가 전체 소득의 20%를, 하위 50%가 50%를 차지하는 식으로 **누적 인구 비율과 누적 소득 비율이 같다**. 따라서 로렌츠곡선은 원점과 오른쪽 위 끝점을 잇는 대각선과 일치한다.

② X: 두 경제의 로렌츠곡선이 교차하지 않고 한 곡선이 다른 곡선보다 위에 있으면, 위쪽 곡선의 경제는 같은 누적 인구 비율에서 더 많은 소득을 차지하므로 더 균등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두 곡선이 교차하면 어떤 인구 구간에서는 한 경제의 누적 소득 비율이 높고 다른 구간에서는 반대로 나타난다. 따라서 **로렌츠곡선의 위치만으로 두 경제의 균등성에 일관된 순위를 매길 수 없다**. 지니계수 등 별도의 지표를 정해 비교할 수는 있지만, 이는 로렌츠곡선의 일관된 상하 관계에 따른 비교와 구별된다.

③ O: 그림에서 α는 완전 균등분배선인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이고, β는 로렌츠곡선 아래의 면적이다. 두 면적을 합한 $\alpha + \beta$는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의 면적이다. 지니계수는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을 대각선 아래 전체 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므로 $G = \frac{\alpha}{\alpha + \beta}$이다.

④ O: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완전 균등분배에서는 로렌츠곡선이 대각선과 일치하여 두 선 사이의 면적이 0이므로 지니계수도 0이다. 대각선 아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두 선 사이의 면적 비율이 클수록** 지니계수가 커지며, 더 불평등한 소득분배상태를 나타낸다.

NoteBase

문 20.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 지은 것은?

오쿤의 법칙(Okun’s law)이 경험적으로 타당하고, 정책 신뢰도가 높은 甲국 중앙은행이 반인플레이션(disinflation) 정책을 펼치려 한다. 이 경우 (㉠) 기대를 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높고, 우하향하는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에 가까울수록 낮은 희생비율을 예상할 수 있다.

① ㉠: 합리적, ㉡: 수직

② ㉠: 합리적, ㉡: 수평

③ ㉠: 적응적, ㉡: 수직

④ ㉠: 적응적, ㉡: 수평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정책 신뢰도가 높으면 **합리적 기대**를 하는 노동자들이 물가상승률 하락을 미리 예상하므로 반인플레이션 정책의 산출 손실이 줄어든다. 또한 필립스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같은 폭의 물가상승률 하락에 필요한 실업률 상승이 작아 희생비율이 낮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희생비율은 인플레이션율을 1%p 낮추기 위해 감수하는 누적 실질 산출 손실의 크기를 나타낸다. 오쿤의 법칙에 따르면 실업률 상승은 실질 산출의 감소와 연결되므로, 물가상승률을 낮추면서 실업률이 적게 상승할수록 산출 손실도 작다.

㉠ 합리적: 합리적 기대는 과거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이용 가능한 정책 정보까지 활용하여 미래 물가상승률을 예상하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의 정책 신뢰도가 높으면 노동자는 반인플레이션 정책이 실행될 것으로 믿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미리 낮춘다**. 이에 따라 임금 인상 요구가 완화되고 단기 필립스곡선이 아래로 이동하므로, 기대가 그대로일 때보다 실업률을 덜 높이면서 물가상승률을 낮출 수 있다. 반면 적응적 기대는 과거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기대를 수정하므로, 정책 발표만으로 기대가 빠르게 낮아지기 어려워 산출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 수직: 세로축이 인플레이션율, 가로축이 실업률인 우하향 필립스곡선에서 기울기가 수직에 가까울수록, 기대인플레이션율 등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같은 폭의 인플레이션율 하락에 필요한 실업률 상승이 작다**. 오쿤의 법칙에 따라 실업률 상승이 작으면 산출 손실도 작아 희생비율이 낮다. 수평에 가까운 완만한 곡선에서는 같은 폭으로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려면 실업률이 더 크게 상승해야 하므로 산출 손실이 커진다. 여기서 수직에 가깝다는 것은 주어진 우하향 곡선이 가파르다는 뜻이다.

따라서 ㉠은 합리적, ㉡은 수직이며, 이 조합은 ①에 해당한다.

NoteBase